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시민의 숲·마이스 혁신기지로 개발

‘보존·개발’ 두 마리 토끼 잡다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의 숲과 마이스(MICE) 혁신기지 등 양축으로 재생방식을 통해 개발한다는 것은 시민을 보듬고, 경제를 키우기 위함이다. 시민들을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진 MICE산업의 혁신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는 조만간 전주종합경기장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과 행정절차 등에 들어가며, 오는 2023년까지는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3대 원칙 실현

전주종합경기장은 지난 1963년 전국체전을 위해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참여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시민들의 애환이 깊게 배어 있는 공간이다. 이는 전주시가 민선6기 들어 기존 개발방식을 선화하게 됐고, 이번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3대 원칙’을 실현시킨 배경이 되는 셈이다.

전주시는 민간사업자인 (주)롯데쇼핑과의 이번 협의 과정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넘겨주지 않는 대신 장기 임대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기장을 개발하기 보다는 상징성과 역사성, 정체성을 더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일부러 공공부지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공원이거나 광장 등으로 되돌려주는 추세다.

둘째로 시는 그간 시민들의 기억이 축적돼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시설을 활용해 재생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전주종합경기장 시설물은 모두 철거되고, 그 자리에 복합쇼핑몰과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시는 이를 재생해 시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지역경제를 감안해 상업시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영화관이 들어선다. 하지만 로드샵 등 서민경제와 직접 연동되는 판매시설의 피해를 우려해 복합쇼핑몰은 빼고, 백화점도 서신동 롯데백화점을 이전하기로 했으며, 이 또한 명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프리미엄급 백화점으로 추

진된다. 재생사업을 통해 대규모 도시 숲을 조성하는 이번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전주시와 부지의 원소유자인 전북도와 갈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도시 한복판을 대기업에게 넘겨주지 않고, 대형쇼핑몰 입점을 막아냈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시민들과 지역상권을 지키면서 얻어낸 것이 최대 결과물로 평가 받는다.

▲과거·현재·미래 담는 커다란 그릇 빛나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는 시민 정서는 물론 지리적으로도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또 전주 교통의 대동맥인 팔달로와 백제로가 교차하는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는 커다란 그릇으로 재창조된다.

시는 시민들이 추억을 쌓아온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숲 1963’을 기본개념으로 전주시의 핵심가치인 사람, 생태, 문화를 담은 소중한 터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석화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민의 숲 1963’은 천만그루 정원 도시라는 큰 틀 안에서 △수백·수천의 나무와 꽃이 어우러지는 ‘정원의 숲’ △공원과 전시, 미술이 역동적으로 호흡하는 ‘예술의 숲’ △아이들이 맘껏 뛰노는 생태놀이터를 구현하는 ‘놀이의 숲’ △트렌디한 맛과 멋, 현대적인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미식의 숲’으로 꾸꾸기로 했다.

여기에는 또, MICE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는 (주)롯데쇼핑에 신규 쇼룸을 임차할 수 있도록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전체 12만2975㎡ 중 18.7%에 해당하는 2만3000㎡ 규모의 부지를 50년 이상 임대하기로 했다. 판매시설은 경기장보다 높지 않게 지상 4층 이하로 조성해 종합경기장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의했다.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부지 재생과 전시컨벤션, 호텔 건립 방안 발표 김승수 전주시장 기자회견이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조감도를 비교하며 답변하고 있다.

종합경기장 활용 재생 등 부지 재생 3대 원칙 실현 시, 기본구상 용역 등 들어가 2023년까지 완료키로

전주시는 (주)롯데쇼핑에 신규 쇼룸을 임차할 수 있도록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전체 12만2975㎡ 중 18.7%에 해당하는 2만3000㎡ 규모의 부지를 50년 이상 임대하기로 했다. 판매시설은 경기장보다 높지 않게 지상 4층 이하로 조성해 종합경기장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의했다.

(주)롯데쇼핑은 그 대가로 국제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전주발전을 이끌어갈 MICE산업의 핵심공간이 될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장과 국제회의장 등이 조성된다. 호텔의 경우 200실 규모로 건립해 20년간 운영 후 반환하기로 했다.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은 오는 2023년 열리는 세계 캠퍼라대회 지원시설과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각종 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각종 국제의 회의를 유치하는 등 MICE산업을 끌어가는 역할을 맡

게 된다. 시는 향후 전주시회의의 동의절차를 거쳐 (주)롯데쇼핑과의 사업제부조 등을 담은 시행협약을 올해 안에 체결하고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 공사 착수를 목표로 전시컨벤션센터와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MICE산업 광역기반 구축, 지역경제 효과 UP

전주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이 다양한 형태의 숲으로 뒤덮인 공원과 함께 곱씹은 황금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MICE산업의 핵심기지가 들어서면서 지역경제 효과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가고 있는 MICE산업은 방문객들의 규모가

크고, 방문객 1인당 지출이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많다. 또 MICE산업을 중심으로 숙박, 음식, 관광에서 파생되는 관련 사업은 물론 운송산업, 물품임대업, 서비스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가 높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경제 성장의 주요 산업이자 지식경제를 이끄는 핵심 분야라는 점을 인지하고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주는 천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한옥마을을 비롯한 관광명소가 자리하고 있어 국제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이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할 MICE산업의 핵심기지로써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60여년 된 종합경기장이 그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대형 광장과 도시숲, 컨벤션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아장 아장 걷는 아이들부터 시민 모두의 삶을 담아내는 가장 전주답지만 가장 세계적인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위원장에

이경신 시의원 선출



전주시의회가 17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석으로 있던 제11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신 의원(호서, 2, 3동)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이 위원장은 “전주시의 복지환경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어 우리 66만 전주시민 누구도 복지환경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전주시의 복지환경 정책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전주시의 가장 큰 현안인 쓰레기 처리 문제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팔복동 공업단지 일대의 환경대책 마련 등 주민복지와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제11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병원 감정노동자 힐링 공연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웃음치료극 ‘응급구조 코메디’를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수련실이 주관한 행사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2019년 스트레스 힐링 특강’의 일환으로 일상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문화공연 관람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관 지하 1층 모야홀에서 열린 공연은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웃음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웃음치료사들이 긴급 치료하는 과정을 담은 상황극을 통해 직원간의 소통과 긍정적인 마인드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김영태 기자

‘상습 폭행·노동력 착취’

장애인시설 원장 부부 경찰 수사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정수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시설점검 중 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 A씨가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상습 폭언·폭력을 일삼는 정황을 발견,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원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대해 현재 확인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숙박업소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전북경찰이 도 내 숙박업소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3주간 경찰·자치단체·숙박업 협회 등과 공조해 합동점검반을 편성, 도내 숙박업소 1,475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15개서 경찰 56명, 지자체 23명, 기타 14명 등 총 93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지자체·숙박업 협회 등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점검을 벌이며 경고스티커 부착(1,475개소 2,151매)과 언론홍보(31회)를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숙박업소 자체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를 제작·배포해 점검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교동 송암마을 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전주시는 전주 송암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송암마을 내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2020년 8월까지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LPG 공급 시설을 갖추으로써 마을 주민의 에너지 사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사 및 난방용

연료비를 줄여 도시가스 수준의 경제성·편의성·안전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생활도로 개설 △하수도 정비 등 송암새마을을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도 연계 시공함으로써 이중 골격을 방지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송효철 기자

앞서, 시는 지난달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함께 교동 송암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마을주민들에게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공유했다.

또, 주민들과 1문 1답을 실시하는 등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송효철 기자

대규모 학술대회로 ‘마이스산업’ 육성 단초 마련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오늘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서

전주시가 1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학술대회를 유치하면서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시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대한피부과학회 회원들이 대거 참가하는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학회의 춘계학술대회가 전주에서 열리게 된 것은 시가 올해 마이스산업 육상 전담부서인 컨벤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전주 마이스 산업 인프라와 유치 정책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유치 상담회를 통해 학회 측으로부터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회의유치 지원정책 등을 정비하고 각종 박람회 참가 및 유치 설명회를 통해 학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켜 이번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다. /송효철 기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전주 마이스 산업 인프라와 유치 정책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유치 상담회를 통해 학회 측으로부터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회의유치 지원정책 등을 정비하고 각종 박람회 참가 및 유치 설명회를 통해 학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켜 이번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다. /송효철 기자

중·장년 구직자에 일자리 제공

전주시, 부안 참프레 공장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전주시가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과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행사를 열었다.

시는 17일 부안 (주)참프레 공장에서 취업취약계층인 중·장년 구직자와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인력채용에 나선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제4회 중·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참프레 협력업체가 닭고기 가공·제조업체인 (주)조은 푸드와 전주시민 중 생산직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층 구직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장견학 및 현장 면접이 진행됐다. 참여업체인 (주)조은 푸드는 이날 현장면접을 통해 총 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구직자들이 생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되는 공정을 견학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구인업체에 대한 신뢰감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주)참프레는 공장견학을 해이한 입사가 가능한 회사로 전주시의 기업체 견학과 현장면접을 통해 구직자들의 입사 초기 이직을 방지하고 취업

취약계층이 직접 업체로 찾아가야 하는 구직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일자리매칭사업으로 이뤄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올해 들어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1개 구인업체와 23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0여명이 채용됐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이런 만남의 장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기업체를 직접 견학하고 현장면접으로 채용의 기회를 얻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인 이상 많은 인력이 필요한 구인하는 업체는 전주시청 일자리지원센터(063-281-2812)로 구인 신청을 하면 집중적인 맞춤형선과 채용대행 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 면접을 통해 인력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